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48009-200000370398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과의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in mom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in working mom and Social Ability in young children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아동·가정복지전공
유소민

#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과의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 김영주

이 논문을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아동·가정복지전공
유소민

유소민의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혜 원　인

심 사 위 원　조 우 미　인

심 사 위 원　김 영 주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 국 문 초 록

##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과의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유 소 민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유아 사회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및 유아 사회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대상은 U시에 살고 있는 만 5세 유아를 둔 취업모 220명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에서 발췌하여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만으로 측정하였다. 어머니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esilience Quotient Test:RQT는 (Reivich& Shatte, 2003)에서 번역이 잘못되었거나 어색한 것을 수정하여 신우열, 김민규와 김주환(2009)이 검증한 회복탄력성 척도를 수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유아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esham & Elliot의 SSRS(Social Skills Rating System)의 척도 중에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서미옥(2004)이 타당화 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SPSS 및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통계 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유아의 사회성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양육 스트레스와 유

아 사회성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사회성의 하위요인인 협력성과 자기 통제성은 양육 스트레스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에서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은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회복탄력성과 유아 사회성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은 유아 사회성의 하위요인인 협력성, 자기 통제성, 주장성에서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으나,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매개 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유아의 사회성이 높아지는 간접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변수효과를 검증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과의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유아가 초기 사회성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사회성, 양육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 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용어의 조작적 정의 ····· 4

II. 이론적 배경 ····· 6
1. 취업모 ····· 6
1) 취업모의 개념 및 특성 ····· 6
2) 취업모의 자녀 양육환경 ····· 7
2. 유아 사회성 ····· 9
1) 유아 사회성 개념 및 특징 ····· 9
3.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 12
1)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 ····· 12
2)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 13
3)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 ····· 14
4. 어머니 회복탄력성 ····· 16
1) 회복탄력성의 개념 ····· 16
2) 어머니의 회복탄력성 ····· 17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 18

III. 연구방법 ····· 20
1. 연구대상 ····· 20
2. 연구도구 ····· 21
1)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 21
2) 어머니 회복탄력성 ····· 22
3) 유아 사회성 ····· 22
3. 연구절차 ····· 23
1) 예비조사 ····· 23
2) 본 조사 ····· 23

4. 자료 분석 ····· 23

IV. 연구결과 ····· 24
1.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회복탄력성과 유아 사회성의 인식 정도 ····· 24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및 유아 사회성 간의 관계 ····· 25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 26

V. 논의 및 결론 ····· 30

참고문헌 ····· 33

Abstract ····· 41

부록 ····· 44

# 표 목차

<표 1>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 6

<표 2>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1

<표 3>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 21

<표 4> 어머니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 22

<표 5> 유아 사회성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 22

<표 6>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회복탄력성과 유아의 사회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

····· 24

<표 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유아 사회성 간의 상관 ····· 25

<표 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 27

<표 9> Bootsrapping 간접효과 검증 ····· 29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델 ····· 4

<그림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경로 ····· 28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정보를 정확히 처리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며, 사회적 책임감과 상호작용을 실행하여 사회적 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저출산 문제, 가족구조의 변화, 치열한 경쟁 등으로 나타나는 전반적인 사회적 폐해는 유아들에게 관계 및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지성애, 이동엽, 2016).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사회성은 성인기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유아들의 1차 사회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가정이 손꼽히며 그중에서도 유아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어머니는 유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 기회 증가, 사회적 지위 향상 등으로 인해 주 양육자 역할을 맡아왔던 어머니들이 사회경제 활동을 하며 온전히 양육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핵가족, 1인 가구 등 가족구조가 변함에 따라 다른 가족으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취업모의 양육에 대한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취업모는 직장에서의 업무와 자녀 양육 모두를 감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 사이에서는 직장 퇴근과 동시에 '육아 출근'을 한다며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취업모는 직장 업무-가사일-육아의 역할 수행으로 인해 피곤을 느낌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김송이, 2012).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Venture, 1987). 심지어 현대 사회의 어머니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모두 수행하는 것에 부담감이 가중되어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현대 사회의 어머니들은 과거에 비해 더 복합적인 역할수행을 요구받게 된다(전연우, 김태경, 조희숙, 2013).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육아와 가사, 직장의 일을 모두 잘하는 초인적 어머니를 뜻하는 '슈퍼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부모 양육 관련 변인 중 핵심적 변인에 포함되는 양육 스트레스는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Abidin(1992)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과 사건들을 누적적으로 경험하였을 때 부모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유발하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을 하는 모든 어머니가 겪게 되는 정서적인 반응으로 양육을 함에 있어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뿌듯함, 만족감, 행복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심리적·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며 개인 생활과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약받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Kuczynski & Kochanska(1990)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유아기는 어떤 시기보다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며(지성애,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역할수행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로부터 역할상실을 불러일으켜 적절한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부모와 가족과의 기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켰다(박명숙, 2002; Abidin, 1992).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거부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양육을 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낮아지고,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유우영, 이숙, 1998; 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비일관적인 부모의 훈육,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강압적인 상호작용, 아동학대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 뿐만 아니라 유아의 정서 및 성격 발달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아의 정서 및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김현미(2006)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 간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 취업모는 아동에게 공격성, 불안 및 과잉행동 등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bidin, 1990; Belsky, 1984). 반면에 취업 여부에 따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고명순, 1997; 최윤경, 2004)도 있다. 그러나 두 연구의 결과 역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최윤경(2004)의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고명순(1997)의 연구에서는 사회성의 하위변인인 아동의 사교성, 자기표현성, 경쟁성에 있어 비취업모의 아동이 더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 사회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된다. 취업모와 유아 사회성과의 관계에 있어 취업모의 취업 자발성 여부 및 직업 만족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성 간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 회복탄력성이 꼽힌다.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며, 인지적·사회적·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발휘하는 융통성 있는 능력을 말한다(이태옥, 2015).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도 다르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깊고 오래 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 빠르게 극복하는 경우도 있다.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어머니는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Garmezy, 1983; Rutter, 1987), 자신의 감정을 알고 통제하며 어떠한 문제나 사건에 대한 지각이 빠르고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모델링이 되고, 안정적이고 민감한 유아의 기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조현주, 2007). 또한 회복탄력적이 높은 어머니의 대처기술이나 문제해결 능력과 기능적 사고는 영유아기 자녀들에게 감정, 정서, 행동 등의 충동성을 억제하는 유아의 자기조절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유미, 2011).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 어머니와 유아 간의 관계, 유아의 사회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고 대응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스트레스의 정도 및 영향을 파악하려면 주어진 환경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능력 및 자원 간의 균형을 어머니 스스로가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Lazarus & Folkman, 1984). 이는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양육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방식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의 주된 초점은 유아에게 맞추어져 있었으며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성의 관계(이무영, 2000; 최옥주, 2016),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회복탄력성과의 관계(고혜진, 2005; 김영임, 2017; 노보람 외, 2016), 어머니의 회복탄력성과 유아의 사회성과의 관계(고유미, 2011; 이지현, 2012; 최윤지, 박인전, 2017) 등 각각의 변인과의 관계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세 가지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성 사이에서 어머니의 회복탄력성 변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유아의 사회성 향상 증진에 기여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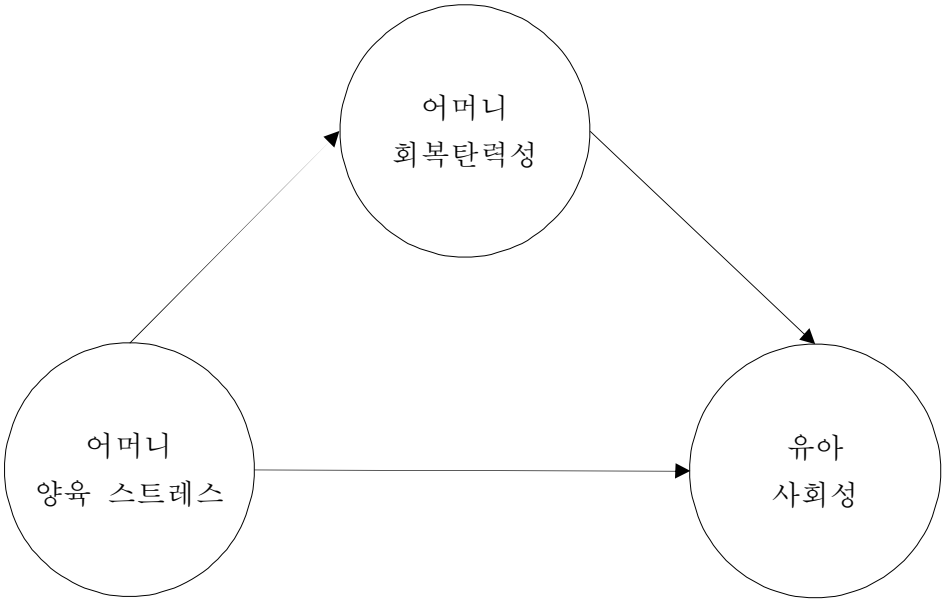
## 2. 연구문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성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에 대

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및 유아 사회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그림 1> 연구모델**

## 3. 용어의 조작적 정의

### 1) 사회성

사회성이란 유아가 성인이나 또래 등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사회성이란 사회적 정보를 정확히 처리하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사려 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며 접근하고,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감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실행하여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보고자 한다. 사회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협력성, 자기통제, 주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협력성은 규칙 및 약속을 준수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자

기통제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주장성은 자신의 생각 및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 2)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란 자녀의 행동 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지각 정도와 일반적인 생활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한다(Abidin, 1990). 본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누적성을 띄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상태로 보고자 한다.

###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역경, 불행, 트라우마 또는 과도기의 위기에서 회복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이전보다 더 강해지거나 풍부해진다고 하였으며 심각한 위험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잠시 감정의 기복이 있더라도 다시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Seccombe, 2002).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양육효능감이 낮아지거나 정서·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있다. 통제성은 문제 상황 시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긍정성은 자신의 인생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능력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사회성은 타인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력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등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모, 유아 사회성,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 회복탄력성 순서로 각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취업모

### 1) 취업모의 개념 및 특성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아성취를 위해 여성들도 자신의 능력을 가사와 아동 양육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속에 내재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여성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며 가정살림을 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어머니들은 엄마와 직장인으로서의 두 가지 역할에 종사하는 생활 모습을 보여준다.

통계청(2019)에 따르면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은 2012년 50.1%, 2014년 51.5%, 2017년 52.7%, 2019년 53.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998년 8,576천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인 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8년 11,893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1>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 천명,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여성경제 활동인구 | 10,335 | 10,520 | 10,704 | 10,862 | 11,229 | 11,426 | 11,583 | 11,773 | 11,893 | 12,097 |
|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 49.6 | 49.8 | 50.1 | 50.3 | 51.5 | 51.9 | 52.2 | 52.7 | 52.9 | 53.5 |

개인의 삶에서 직업노동을 자아 성취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과 교육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는 점, 가계 경제 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취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업모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제, 사회적으로 가족 구성이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적응하고 융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가장 중심의 권위주의적 부부관계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전통적인 부부 역할에 대한 태도가 아닌 상황에 따라 융통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서로 협력하여 함께 가정

을 꾸려 나가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 역시 매우 일반적인 일이며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직장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문화와 사회에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정생활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들은 직업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통계청 조사(2010)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 부담요인 중 작용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혼여성의 58.5%와 미혼여성의 38.2%가 '육아 부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유무를 떠나 여성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들을 예상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사회활동에 따른 여성의 지위가 진보되었다고 하나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개선, 가정 내에서의 부부간의 평등한 위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등을 볼 때 취업 기혼여성들은 자기 속에 내재하는 자아 정체감의 혼란,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기대와 실제 수행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신재숙, 2014).

취업으로 인한 여성의 역할수행은 양이나 내용 면에서 재조정이 어렵다.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녀 양육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취업모 가정에서 자녀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가족원이다. 실제로 이것은 기혼여성이 취업을 포기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을 일으키고 취업률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분리되어 양극단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취업을 선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해 매우 염려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취업모의 가족갈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이며 취업여성의 자녀 관계는 사회적 계층, 직종, 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의 복합 변인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취업여성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Greenstein, 1986), 93.3%가 불안감과 죄책감을 가져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희경, 1988).

또한 최근 U시는 중공업 및 자동차 산업이 침체됨에 따라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고 경력단절 여성들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UBC 프라임뉴스, 2020). 이에 취업모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2) 취업모의 자녀 양육환경

유아에게 있어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의 대상은 부모이다.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환경은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 등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한다(최민자, 2004). 이

에 취업모의 자녀 양육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 양육은 한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사회에 적응하고 소속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교육하는 다양한 활동 등을 뜻하며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좋은 양육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 양육자 역할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노력이나 양육 태도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어머니가 체감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선행연구에서도 관련 변인으로 연구되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이에게 신경질적이고 무관심하기 쉽고(장현숙, 200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가정의 가계소득과 대리양육자의 유무,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참여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2011).

분업화 사회가 되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 사이에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취업모가 증가하며 가족의 양육 기능은 사회적 책임으로 '다함께 육아'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가 되며 아동 보호나 사회화 교육을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유아들이 어머니가 아닌 보육시설이나 조부모, 친척 등을 통해 보호받게 되며 자녀양육의 문제가 비단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게 되었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조부모로부터 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교육적 측면,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취업모는 기관보육을 선택하기도 한다. 기관 보육은 보육자들이 법적자격증을 가지고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며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여러 명 모여 생활하게 되며 영유아들의 사회성이 발달되기도 한다. 보육시설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정옥분 외, 2008).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 겪는 전체적인 환경을 통틀어 자녀양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환경과 정서적, 인간적인 환경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영유아기에 어머니는 민감한 시선과 행동으로 자녀의 특성과 행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에 대한 민감성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정서적·물리적 차원에서 지원해주었을 때 어머니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양육에 임할 수 있다.

## 2. 유아 사회성

### 1) 유아 사회성 개념 및 특징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사회성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기보다는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치, 규범 등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유아는 자신이 습득한 사회적 기술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성의 발달은 자라나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영유아기에 맺는 사회성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기에 사회적 유능감을 건강하게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발달은 통합적이고 누적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유아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정서적 능력이 발달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며 적극적인 관계 형성으로 인해 신체적 발달이 일어난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이후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달의 초기인 유아기에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윤희, 문혁준, 2018).

사회성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친사회성, 친사회적 능력, 사회적 기술, 사회적 유능감 등 연구자마다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개념에 대한 정의 역시 다양하다.

사회적 기술이란 대인관계에서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능력, 적절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 타인과 좋은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언어와 비언어적 행동을 구사하는 능력이다(Bedell & Lennox, 1997).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을 이해하고 배워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 및 또래관계의 형성 및 개선이 가능하다. 초기 아동기에는 또래와 놀이 하기, 친구 사귀기, 놀이를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협력하기,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나누기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기술에서 강조되지만, 청소년기에는 동료 이해하기, 동료에게 도움을 주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등과 같은 내용으로 확장된다(Greener, 2000). 최근 영유아들이 이른 시기부터 보육 및 교육기관에 맡겨짐에 따라 사회성이 빠르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초기 사회화의 방법 및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숙하여 많은 영유아들이 기관에서 교사 혹은 또래와 사회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편, 유아의 사회성을 사회성숙도와 사회적 능력의 혼합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사회성숙도는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사회적 양식, 가치, 태도 등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능력은 사회인지 측면과 관련시켜 문제의식, 문제해결력, 사회적 목

표달성,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을 말한다(이은영, 2008).

사회적 기술은 인간이 긍정적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워나감으로써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유능감 유지 또는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한다. 즉,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친구 사귀기, 동아리 및 모임에 소속되기,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하고 공감하기, 규칙 지키기 등의 사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나타내는 행동들을 말한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환경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부모, 교사 등의 환경적 요인과 성별, 기질 등의 개인적 요인이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적 요인으로서 어머니 측면에서는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강은진, 이예진, 이정림, 2016; 권희경, 2009; 오현주, 이진희, 2013), 어머니-유아의 애착 유형(조은정, 정주선, 2011), 어머니-유아의 조화적합성(장유진, 이강이, 201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으로서 유아 측면에서는 기질(김예은, 2016; 문영경, 이영, 2012), 성별(조상흔, 2007), 정서지능 및 정서발달(안라리, 2005)이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의 하나인 부모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김지현, 오선진, 2015)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개인주의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회의 빠른 변화로 인해 인간관계가 다양해질수록 향후 한 개인의 사회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의 사회성 발달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신옥순, 1994).

첫째, 주도성이 강해지면서 점차 스스로 하고자 하며 스스로 했을 때 자신감을 얻게 된다. 영·유아기의 아동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 및 성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만 4세, 만 5세에 접어들면서 유아들은 능력이나 기술이 향상되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능력에 대해 도전해보고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한다.

둘째, 관심의 대상이 가정에서 또래로 변화됨에 따라 경험의 폭을 넓혀 가면서 강한 또래집단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험은 유아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폭넓은 경험을 통한 인지적인 성장을 촉진 시켜준다.

셋째, 사회 속에서 자기를 인식함으로써 자아개념 확립의 기초를 형성한다. 또래들과의 생활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넷째, 성역할을 인식한다. 자기의 성을 의식하기 시작하여 여자아이는 여자다운 것을, 남자아이는 남자다운 것을 선택하고 행동한다.

유아의 사회성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되지만 크게 분류해 보면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자기조절, 자아개념 등의 유아의 개인적 요인(고유미, 2009; 김보미, 2009; 남슬기, 2015; 장원보, 2013; 한미림, 2013)과 부모의 직업, 학력, 부모의 양육 태도 등 환경적 요인(임성실 외, 2010; 채영문, 2010)이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 사회성을 사회적 정보를 정확히 처리하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사려 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며 접근하고,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감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실행하여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보고자 한다.

만 5세 유아의 사회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3)가 제시한 제 3차 누리과정 만 5세 사회관계에는 5가지 내용범주가 있다. 그중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협력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행동한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이나 공공규칙을 지킨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세부내용은 만 5세 유아의 인지·정서적 발달을 기반으로 작성하여 공보육의 목표로 삼음으로써 만 5세 사회성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중 전조작기에 속한다. 이 시기는 동작이나 감각을 사용하여 사고를 하는 시기로 직관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 과제에 대한 이해나 처리방식이 정확하지 못하다. 또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이 점차 형성되며 기억력과 언어기능이 증가되고 자아개념이 발달하고 또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정옥분, 2004).

만 5세는 이전 연령보다 덜 자기중심적이고 관대하며 친절하며 또래와도 잘 어울릴 수 있다. 다른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이 발달되고, 차례 지키기, 협동하기, 돕기, 협상하기, 공유하기 등의 사회적 능력과 규칙 및 규범을 배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인식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또래의 인정에 민감하며 또래의 규제력이 유아의 중요한 사회적 준거가 된다. 사회적 기술과 사회화의 역할을 인식하여 개인과 타인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이 발달한다(이순복 외, 2013).

Parten(1932)이 나눈 사회적 수준에 따른 놀이의 유형 중 만 5세의 유아는 대부분 협동놀이 수준에 있다. 협동놀이(Cooperative play)는 유리들끼리 조직되고 체계화된 놀이를 하는 형태로 놀이 리더(대장)가 있으며, 놀이자들끼리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역할을 서로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놀이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Parten은 유아가 성장하고 사회성이 발달함에 따라 혼자놀이와 병행놀이의 비중은 감소하고 연합놀이

나 협동놀이의 비중은 증가한다고 하였다(이순복 외, 2013).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회성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또래관계가 원만해지고 또래의 인정에 민감해지는 만 5세 유아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 1)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

현재는 가족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개방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자녀 양육에 쏟고 있는 노력과 관심, 기대는 과거에 비해 더 높아져 그에 따른 부모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자녀 양육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의 경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자녀 양육에 따른 공간적, 시간적, 심리적 등의 다양한 제약을 받게 되면서 부모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부모 자신의 자아실현, 자아 성취 과정에도 제약을 받거나 한계에 이른다.

Abidin(l990)은 자녀의 행동 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지각 정도와 일반적인 생활 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양육 기능과 더욱 밀접한 영역은 부모영역 스트레스로 본다..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양육 기능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모역할에 있어 유능감의 결여 및 우울 등을 부모의 '디스트레스' 라 한다.

양육 스트레스는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 체계가 직면하는 발달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이며, 부모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불만을 느끼고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점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Abidin, 1992). 또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구성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가족 체계 내의 긴장과 압력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정도나 부담감을 말하며,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지각된 정서로 정의할 수 있다(고성혜, 1994; 안지영, 2001). 최근 결혼하는 젊은 세대의 부부들은 자녀를 낳음과 동시에 자신의 시간, 취미, 여가 등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며 임신을 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2세를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은 양육행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화시켜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Abidin, 1990; 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 부모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

험할수록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이 나타나며, 양육행동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Abidin, 1990; Belsky, 1984).

양육역할의 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생활사건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서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정신건강 및 가족기능을 더 잘 예측한다고 나타내었다(Crnic & Greenberg, 1990).

또한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스트레스가 연속되어 쌓이면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배우자나 친척 등의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점차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부모 자신의 심리적 건강과 자녀와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여러 스트레스 중에서도 가장 큰 스트레스이며 어머니로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는 자녀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녀가 자신의 가정을 이룬 후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가족스트레스연구회, 1994). 부모가 가지는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 행동,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애착과 같은 관계형성에도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양육 과정에서 부모 개인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은 상호작용하면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런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역기능은 다시 아동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명숙,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누적성을 띄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상태로 보고자 한다.

### 2)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맞벌이 가정의 가사분담 실태를 통계청(2014) 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아버지 0시간 42분, 어머니 3시간 5분이었다. 이는 10년 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사분담 실태 중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아버지는 평균 10분, 어머니는 36분으로 어머니의 자녀 양육 시간이 약 3배 더 많았다.

어머니가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 내에서의 양육이 어려워졌고, 이는 어머니가 사회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는 데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었다. 자녀를 기관에 맡겨두고 출근해야 하는 어머니들이 겪어야만 하는 심리적 부담감 및 압박감은 직장 업무-육아의 역할 갈등을 초래하여 심화시키고, 양육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부모-자녀가 함께 지내는 시간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있어 장기간 누적되어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상실, 양육효능감 저하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런 문제들은 자녀에게는 물론 부부관계와

가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아동학대나 이혼율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Venture(198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 모두 과중한 역할분담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고, 특히 어머니의 경우 양육에서의 역할과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의 책임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현대 사회로 변화해오면서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되며 도와주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으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더 많이 편중되어 있다. 아버지에 비해 자녀 양육에 있어 주된 역할을 맡아 보호와 감독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아버지에 비해 월등히 크고 자녀 양육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의 비중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가정의 질, 가정의 기능 및 관계 등 여러 가지 가족에 관련된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아기는 아동에게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이 시기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Abidin, 199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는 양육환경도 영향을 끼치는데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태도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어머니가 받는 양육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가 클 경우 그만큼 아이에게 신경질적이고 무관심하기 쉽다(장현숙, 2001). 최윤경(2011)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가정의 가계소득과 대리양육자 유무,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참여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도움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심리적·물리적 차원에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었을 때 어머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녀의 가정보육부담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론은 선행연구(강희경, 1998; 김정애, 2001)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대 사회에 취업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역할수행 및 심리적 부담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수행 및 심리적 부담감은 곧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유아의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양육에 어머니의 역할이 대부분 차지하므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어머니가 양육 시 받는

스트레스는 여러 측면에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특성, 어머니 관련 변인 등으로 영향을 받는다(Abidin, 199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을 하고, 양육효능감도 낮아지게 된다. 부모-자녀 관계 관련 연구를 보면, 유아를 양육할 때 가지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유아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통제적인 양육을 하므로 자녀의 행동,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Crnic & Greenberg, 1990). 또한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유아가 자기 정서의 인식 및 조절을 배울 수 있으며, 타인에게 긍정적 반응을 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유능하게 하여 문제해결력을 높인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 부정적인 관계 형성은 유아가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고, 부정적인 기대와 믿음을 갖게 하여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불신감, 공격성 및 무감각 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최옥주, 2016).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불안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적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한다(Crnic & Greenberg, 1990).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기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아이가 자람에 있어 그 뿌리가 된다. 또한 부모는 영유아에게 있어 양육자이자 교육자, 지지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를 양육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자녀가 배우는 모든 행동 범위를 설정하고 행동을 교정해 주는 교정자의 역할도 하게 된다(권은주, 2011).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률 증가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하였고, 가정에서는 더 이상 자녀 양육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게 되었다. 현대 사회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의 양육과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주 어린 영아일 때부터 대리 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연관지어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는 현재 취업모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직면되고 있다. 취업모는 사회적지지 혹은 직계 가족의 유무 등 다양한 양육환경 변인들 속에서 자녀 양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양육환경 변인들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자녀 양육 기능의 약화는 물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까지도 위기에 놓일 수 있게 한다(이무영, 2000). 자녀와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아동의 정서, 인지행동발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게 되고, 이로 인해 자녀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하게 되어 정서적 불안정이나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학습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한

다. 이러한 1차 사회화 형성의 배움터가 되는 가정, 그중에서도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 정서적 불안정이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이후 유아의 사회성과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4. 어머니 회복탄력성

### 1) 회복탄력성의 개념

회복탄력성은 최근에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부각되고 있는 심리학적 개념이다. 회복탄력성의 발견은 정신분열증을 가진 어머니를 둔 아동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Garmezy, 1983). 회복탄력성은 선천적이기보다는 변화와 도전적 환경에서 긍정적 적응과 역동성을 가진 후천적인 개념이다.

회복탄력성은 위험, 역경, 스트레스를 전제로 한다.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정서 안정성과는 달리 역동적이며 발달적인 과정을 포함하며, 부정적인 상황에서 표출되는 행동을 예측하게 한다(Luthar et al, 2000).

또한 회복탄력성은 역경, 불행, 트라우마 또는 과도기적 위기에서의 회복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이전보다 더 강해지거나 풍부해진다고 하였으며 심각한 위험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잠시 감정의 기복이 있더라도 다시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Seccombe, 2002).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초기 발견 이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자신에게 닥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 회복탄력성이다(최성애, 2014). 초기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주로 개인의 특성으로 간주되었으며, 적응의 중요한 방법으로 이해되었다.

회복탄력성이 가지는 포괄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원인분석력,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과 같은 개인의 특성과 함께 관계성이라는 외적 자원의 특성을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포함시켰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또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Wagnild와 Young(1993)은 평정심, 인내심, 자기신뢰, 목적의식, 독립심을 언급하였고, Russell과 Russell(1995)은 자기신뢰, 개인적 비전, 계획성, 융통성, 문제 해결력, 사회성, 대인관계, 조직력을 언급하였다. Reivich와 Shatte(2002)는 정서조절력, 낙관성, 충동통제력, 적극적 도전성. 자기효능감, 원인분석력, 공감능력으로 구분하였고 Connor와 Davidson(2003)은 긍정성, 개인적 능력,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성, 자기조절력, 영성으로 나누었고 Friborg 등(2005)은 개인적 강점, 사회적 능력, 조직화, 가족 결집력,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하였으며

Ryan과 Caltabiano(2009)는 자기효능감, 내적통제력, 인내심, 가족 및 사회지원망, 적응력 등의 하위요인을 제시하고 있다(최미정, 2016). Smith 등(2008)은 회복력, 사회지원망, 적응력,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소통능력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고(박현숙, 2017), 김주환(2011)은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를 하위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최미정, 2016).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회복탄력성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초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양육효능감이 낮아지거나 정서·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 2) 어머니의 회복탄력성

이지현(2012)의 연구에 따르면 만 5세 자녀를 둔 모의 회복탄력성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과 평균 월 수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을 가진 어머니는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Garmezy, 1983; Rutter, 1987),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Klohnen, 1996; Rutter, 1987). 또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통제하며 어떠한 문제나 사건에 대한 지각이 빠르고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유혹에 저항하는 행동에 대해 유아에게 모델링이 되고, 안정적이고 민감한 유아의 기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조현주, 2007). 이러한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에 부정적이거나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 혹은 자해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탄력성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좌절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회복탄력성을 가진 어머니는 체계적으로 생각하기, 상황에 따라 융통적으로 행동하기, 문제 발생 시 침착하게 다루기, 상황에 따른 전략을 생성하여 자신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아개념이 강화되어 자신의 조절력을 획득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회복탄력성이 높은 어머니는 가족 또는 지인에게 벌어지는 부정적인 상황에 뚜렷하고 건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유아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정서, 행동 등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Linke(2010)는 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녀의 탄력성 형성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최윤지, 박인전, 2018). 이는 유아기 아동의 인성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아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생활하며 그 가치체계를 배우고 습득하게 된다. 유아 인성 중 강조되는 것 중 하나는 배려이다.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만 3~5세 누리과정에서도 사회관계 영역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유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상호협력해 지내야 함을 강조하다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낙관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낙관적으로 자라게 되며, 자녀의 낙관성은 또래관계와 위기상황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친다(최윤지, 박인전, 2018). 어머니가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게 만드는 전략을 배울 수 있게 하는 모델이 된다. 어머니가 자녀 정서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태도가 유아가 부정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하게 하고, 이는 어머니의 회복탄력성 중 대인관계능력이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뇌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운동신경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며(정미라 외, 2014) Anthony 등(2005)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지적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면 유아의 연령에 따라서는 만 5세인 유아의 어머니가 만 3세, 만 4세인 유아의 어머니보다 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보였다(신명선, 김효정, 2017).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부적응이 높아지고, 공격성, 불안 및 과잉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결과와 양육과 관련된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이 유아의 적응과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현미, 2006; 이정희, 2000; Abidin, 1990; Belsky, 1984).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는 충동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보였고, 이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더욱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어지며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보람 외, 2016). 또한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불안, 우울 및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경, 민현숙, 2008). 그러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과 관련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배려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희, 김경숙, 2015). 이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성'이 유아 배려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김민정, 김정원(2010)은 어머니의 행복감 중 이타심, 긍정적 인생관이 유아의 친사회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어머니의 긍정적 인생관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성'과 유사한 개념이다(최윤지, 박인전, 2017). 이는 어머

니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성’이 유아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고유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통제성이 유아의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인 행동억제와 정서성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통제성인 원인분석력, 감정 통제력, 충동통제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동억제와 정서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지현(2012)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충동통제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해결력이 높다는 것이 나타났다. 박현숙(201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곧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성에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의 매개경로를 통하여 유아 사회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만 5세는 언어와 사고가 발달하여 본인의 의사 및 감정 표현을 분명히 할 수 있어 부모 평정 측정 도구 사용이 용이하고, 더 어린 연령의 유아들에 비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Parten(1932)이 말하는 사회적 수준에 따른 놀이 유형 중 협동놀이에 속하는 시기로 놀이에 리더가 있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놀이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교류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만 5세 유아와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U시에 살고 있는 만 5세 유아를 둔 취업모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89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89명>

| 특성 | 구분 | N | % |
|---|---|---|---|
| 자녀 성별 | 남아 | 102 | 54.0 |
| | 여아 | 87 | 46.0 |
| 자녀 출생순위 | 첫째 | 113 | 58.8 |
| | 둘째 | 72 | 28.1 |
| | 셋째 | 4 | 2.1 |
| 자녀 수 | 한 명 | 68 | 36.0 |
| | 두 명 | 105 | 55.6 |
| | 세 명 이상 | 16 | 8.5 |
| 어머니 연령 | 29~32세 | 14 | 15.3 |
| | 33~37세 | 67 | 35.4 |
| | 38~42세 | 79 | 41.8 |
| | 43~47세 | 29 | 7.4 |
| 어머니 학력 | 고등학교 졸업 | 4 | 2.1 |
| | 2, 3제 졸업 | 28 | 14.8 |
| | 대졸 이상 | 157 | 83.1 |
| 어머니 직업 | 공무원 | 31 | 16.4 |
| | 사무직/기술직 | 53 | 28.0 |
| | 판매/서비스 | 16 | 8.5 |
| | 생산/기능직 | 1 | 0.5 |
| | 전문직 | 49 | 25.9 |
| | 기타 | 39 | 20.6 |

| | | | |
|---|---|---|---|
| 가정의 월평균 소득 | 300만원 미만 | 16 | 8.5 |
| | 300~400만원 미만 | 24 | 12.7 |
| | 400~500만원 미만 | 44 | 23.3 |
| | 500만원 이상 | 105 | 55.6 |

<표 2>와 같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02명(54.0%), 여아가 87명(28.8%)이었다. 7세 자녀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113명(58.8%), 둘째인 경우가 72명(28.1%), 셋째인 경우가 4명(2.1%)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한 명이 68명(36.0%), 두 명이 105명(55.6%), 세 명 이상이 16명(8.5%)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29~32세가 14명(15.3%), 33~37세가 67명(35.4%), 38~42명이 79명(41.8%), 43~47세가 29명(7.4%)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명(2.1%), 2, 3제 졸업이 28명(14.8%), 대졸 이상이 157명(83.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은 공무원이 31명(16.4%), 사무직/기술직이 53명(28.0%), 판매/서비스가 16명(8.5%), 생산/기능직이 1명(0.5%), 전문직이 49명(25.9%), 기타가 39명(20.6%)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16명(8.5%), 300~400만원 미만이 24명(12.7%), 400~500만원 미만이 44명(23.3%), 500만원 이상이 105명(55.6%)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 1)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에서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사용하였다. 이 영역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 스트레스의 척도에는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표 3>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 하위 요인 | 문항번호 | 문항수 | 신뢰도 |
|---|---|---|---|
|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2 | .90 |

### 2) 어머니 회복탄력성

어머니 회복탄력성은 Resilience Quotient Test:RQT는 선행연구(Reivich& Shatte, 2002)에서 사용된 다양한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번역이 잘못되었거나 어색한 것들을 수정하여 통제성 9문항, 긍정성 9문항, 사회성 9문항, 총 27문항을 신우열, 김민규와 김주환(2009)이 검증한 회복탄력성 척도를 수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6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회복탄력성의 척도에는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값은 통제성 .79, 긍정성 .82, 사회성 .81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표 4> 어머니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 하위요인 | 문항번호 | 문항수 | 신뢰도 |
|---|---|---|---|
| 통제성 | 1, 2, 3, 4, 5, 6, 7, 8, 9(R) | 9 | .79 |
| 긍정성 | 10(R), 11, 12(R), 13, 14, 15, 16, 17, 18 | 9 | .82 |
| 사회성 | 19(R), 20(R), 21(R), 22, 23, 24, 25, 26, 27 | 9 | .81 |
| | 전체 | 27 | .89 |

### 3) 유아 사회성

유아 사회성은 Gresham & Elliot의 SSRS(Social Skill Rating System)의 척도 중에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서미옥(2004)이 타당화 한 것을 수정하여 측정하였으며 협력성 9문항, 주장성 5문항, 자기통제성 7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 사회성 척도에는 '도움 없이 스스로 해보려고 한다', '심부름을 잘 수행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값은 협력성 .83, 자기통제성 .70, 주장성 .88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표 5> 유아 사회성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 하위요인 | 문항 | 문항수 | 신뢰도 |
|---|---|---|---|
| 협력성 | 1, 3, 4, 5, 6, 9, 12, 14, 17 | 9 | .83 |

| | | | |
|---|---|---|---|
| 자기통제성 | 7, 8, 10, 11, 13, 15, 21 | 7 | .70 |
| 주장성 | 2, 16, 18, 19, 20 | 5 | .88 |
| | 전체 | 21 | .89 |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본 연구를 실시하기 이전에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설문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U시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1곳에 만 5세 어머니 13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의 초안을 중심으로 어머니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등의 차원에서 피드백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아동가정복지학 전문가 1인과 보육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 4인의 수정·보완 작업을 통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 2) 본조사

본 연구의 자료는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U시에 거주하며 만 5세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조사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통해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전달하여 조사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된 220부의 질문지 가운데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89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 사회성과 관계를 가질 때 어머니 회복탄력성이 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및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였고 분석기법으로는 SPS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유아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회복탄력성,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검증하였다.

# Ⅳ. 연구결과

## 1.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회복탄력성과 유아 사회성의 인식 정도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회복탄력성과 유아의 사회성의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회복탄력성과 유아의 사회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89)

| 구분 | 하위요인 | *M* | *SD* |
|---|---|---|---|
|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 전체 | 2.77 | .83 |
| 어머니 회복탄력성 | 통제성 | 3.60 | .54 |
| | 긍정성 | 3.81 | .55 |
| | 사회성 | 3.76 | .54 |
| | 전체 | 3.73 | .43 |
| 유아 사회성 | 협력성 | 3.71 | .58 |
| | 자기통제성 | 3.61 | .53 |
| | 주장성 | 3.78 | .77 |
| | 전체 | 3.70 | .50 |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77(SD=.83)으로 나타났다. 중앙값은 2.81로 평균이 중앙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 회복탄력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전체 평균은 3.73(SD=.43)으로 평균이 높은 편이었으며, 관련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긍정성(M=3.81, SD=.55), 사회성(M=3.76, SD=.54), 통제성(M=3.60, SD=.5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 사회성의 전체 평균은 3.70(SD=.50)으로 평균이 높은 편이었으며, 관련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주장성(M=3.78, SD=.77), 협력성(M=3.71, SD=.58), 자기통제성(M=3.61, SD=.53) 순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및 유아 사회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유아 사회성 간의 상관**

| | | | 회복탄력성 | | | | 유아 사회성 | | | |
|---|---|---|---|---|---|---|---|---|---|---|
| | | 양육 스트레스 전체 | 통제성 | 긍정성 | 사회성 | 회복탄력성 전체 | 협력성 | 자기통제성 | 주장성 | 사회성 전체 |
| 양육 스트레스 전체 | | 1 | | | | | | | | |
| 회복탄력성 | 통제성 | -.40** | 1 | | | | | | | |
| | 긍정성 | -.49** | .45** | 1 | | | | | | |
| | 사회성 | -.24** | .44** | .41** | 1 | | | | | |
| | 회복탄력성 전체 | -.48** | .78** | .78** | .78** | 1 | | | | |
| 유아 사회성 | 협력성 | -.33** | .48** | .38** | .40** | .52** | 1 | | | |
| | 자기통제성 | -.26** | .35** | .30** | .36** | .45** | .70** | 1 | | |
| | 주장성 | -.09 | .22** | .23** | .21** | .29** | .37** | .53** | 1 | |
| | 사회성 전체 | -.28** | .47** | .38** | .40** | .52** | .87** | .88** | .73** | 1 |
| | 왜도 | -.13 | -.18 | -.74 | -.09 | -.21 | -.04 | .01 | -.22 | -.01 |
| | 첨도 | -.21 | .26 | 1.58 | -.27 | .55 | -.21 | -.32 | -.65 | .11 |
| | 평균 | 2.76 | 3.60 | 3.81 | 3.76 | 3.72 | 3.71 | 3.61 | 3.77 | 3.69 |
| | 표준편차 | .83 | .53 | .55 | .53 | .43 | .57 | .52 | .77 | .50 |

*$p$<.05, **$p$<.01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r$= -.28, $p$<.01)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 사회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회복탄력성과 유아 사회성($r$= .52, $p$<.01)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유아 사회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r$= .-48, $p$<.01)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협력성($r$= -.33, $p$<.01), 자기 통제성($r$= -.26, $p$<.01)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회복탄력성과 유아 사회성의 각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통제성과 협력성($r$= .48, $p$<.01), 자기통제성($r$= .35, $p$<.01), 주장성($r$= .22, $p$<.01)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성과 협력성($r$= .38, $p$<.01), 자기통제성($r$= .30, $p$<.01), 주장성($r$= .23, $p$<.01)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과 협력성($r$= .40, $p$<.01), 자기통제성($r$= .36, $p$<.01), 주장성($r$= .21, $p$<.01)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와 통제성 ($r$= -.40, $p$<.01)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성($r$= -.49, $p$<.01)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성($r$= -.24, $p$<.01) 간에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성의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랩 Sample은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이전의 연구들에서 매개효과 분석은 Baron과 Kenny(1986), Sobel(1982)의 제안한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매개효과의 크기를 대상으로 직접적 유의도 검정을 하지 않은 채 간접적인 추론에 근거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Hayes, 2013). 한편 Sobel(1982)이 제안한 방법은 직접적으로 매개효과를 산출했다는 점에서 Baron과 Kenny의 방법을 보완할 수 있지만 이는 정규분포를 가정한 후 매개효과의 추정치를 산출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반면 Hayes(2013)가 제안한 방법은 앞서 언급한 기존 방식들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치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Bootstrapping 방법에 근거하여 매개효과의 크기와 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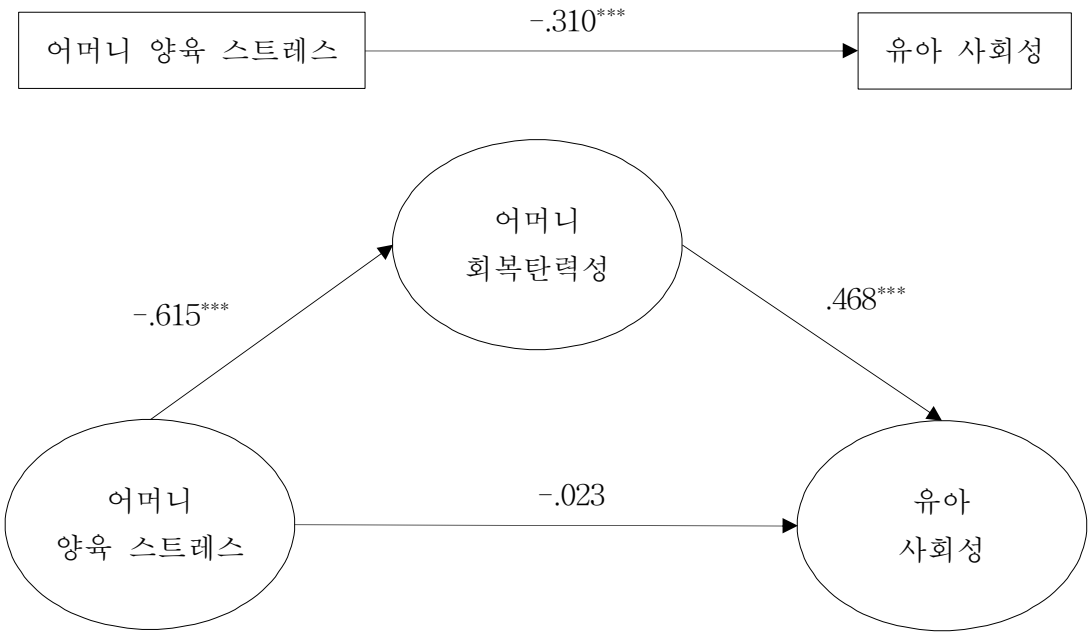
**<표 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 변수 | β | se | *t* | *p* | LLCI | ULCI |
|---|---|---|---|---|---|---|
|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 어머니 회복탄력성) | | | | | | |
| 양육 스트레스 | -.615 | .081 | -7.596 | .000 | -.315 | -.185 |
| $R$=.268, $R^2$=.072 | | | | | | |
|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 유아 사회성) | | | | | | |
| 양육 스트레스 | -.023 | .083 | -.276 | .783 | -.097 | .074 |
| 회복탄력성 | .468 | .065 | 7.159 | .000 | 0.436 | .768 |
| $R$=.522, $R^2$=.273 | | | | | | |

LLCI = β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 = β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8>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7%였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회복탄력성 두 요인은 유아의 사회성을 27% 설명했다.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머니의 회복탄력성(β=.468, $p$<.001)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경로**




또한, <그림 2>의 각 경로별 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615($p$<.001)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계수는 .468($p$<.001)로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유아의 사회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23($p$>.05)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Process Macro 방법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하지 않아도 간접효과의 증명을 통해 매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유아의 사회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성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서 유아의 사회성 간의 총효과는 β=-.310($p$<.001)였으나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서 유아의 사회성 간의 경로의 직접효과가 β=-.023로 감소하여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의 정도는 어머니의 높은 회복탄력성을 통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Bootsrapping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Bootsrapping 간접효과 검증

| 효과 | 신뢰도 수준 | β | se | LLCI | ULCI |
|---|---|---|---|---|---|
| 총효과 | | -.163 | .043 | -.247 | -.078 |
| 직접효과 | 95% | -.012 | .043 | -.097 | .074 |
| 간접효과 | | -.151 | .034 | -.221 | -.089 |

LLCI = β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 = β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9>와 같이 매개효과 크기는 -.151이며 부트스트랩핑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221~-.089)에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은 유아의 사회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성 간 경로의 총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큰 점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성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 Ⅴ.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U시 만 5세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및 유아 사회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Hayes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 관계에서 유아 사회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을 거쳐 유아 사회성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및 유아 사회성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성에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현미, 2004; 지성애, 이동엽, 2016; 최옥주, 2016; 홍지은, 2015; Abidin, 1990). 어머니는 유아의 주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유아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데,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안지영, 200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즉, 양육 스트레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양육을 함에 있어 양육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높아지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성 하위요인 중 협력성과 자기 통제성에 부적 상관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협력성에 영향을 주고 유아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억제나 정서성 발달에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또래상호작용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노보람 외, 2016; 조재숙, 박재학, 2017)와 일치한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유지할 때 유아가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인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간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주연(2020)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 자아탄력성 간의 부적상관이 나타났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성에서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부정적인 생각 및 상호작용 등을 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없도록 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돕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 및 심리적 지원,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 회복탄력성과 유아 사회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회복탄력성은 유아 사회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박현숙(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인 공감의 수준이 높고 사회성에 대한 지도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통해 유아의 사회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성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배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고유미, 2011; 김순희, 김경숙, 2015; 김지현, 김영희, 2017; 이귀애, 김영희, 2016)와 같은 맥락이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통제성은 유아 사회성의 하위요인인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고유미, 2011)와 일치한다. 또한 유아 부모의 회복탄력성과 유아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본 이지현(2012)은 어머니의 회복탄력성 중 충동통제력이 높으면 유아의 문제해결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 회복탄력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는 유아에게 가장 밀접하고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어머니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유아에게 자주 모델링된다면 유아는 이를 내면화시켜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자기통제력을 발달시키는 등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수현(2020)의 연구에서도 회복탄력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중재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더라도 회복탄력적인 어머니는 빠르게 원상태로 돌아와 긍정적인 양육을 하여 유아의 사회성에 있어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매개분석 결과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으나,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유아의 사회성이 높아지는 간접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는 점이다. 취업모는 사회생활로 인해 어머니에 대한 역할 수행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지만 모성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받아들이고 직장인과 어머니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렇다고 양육 스트레스를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어머니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길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머니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안정된 육아를 할 수 있고 이는 곧 유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회복탄력성이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사회성을 매개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예방 및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유아가 초기 사회성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에 여유로운 삶, 힐링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이 급부상하고 이에 유아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일반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2. 제언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성,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을 측정함에 있어 어머니가 모두 평정하였다. 따라서 어머니 자신과 자녀에 대한 평가에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어 그 진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며, 응답자의 우발적 반응 또는 행동에 대한 관찰 등에 제한이 있는 양적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심층 면담, 사례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질적연구 등이 추가로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U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을 더욱 확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 또는 다양한 연령을 포함하는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다양한 어머니 관련 변인 중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만을 통해 유아의 사회성 변화요인을 찾았다. 하지만, 유아의 사회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 관련 변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이들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가족스트레스 연구회(1994). **엄마의 스트레스**, 서울: 창지사.

강은진, 이예진, 이정림(2016).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0**(98), 29-49.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역할관과 지위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명순(1997).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0**(18), 21-37.

고유미(2009).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유미(201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회복탄력성과 유아의 자기통제 간의 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혜진(2005).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권수현(202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은주(2011). 취업모의 스트레스, 보육시설, 보육정책이 둘째자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희경(2009).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幼兒 敎育學論集**, **13**(4), 79-98.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기현, 조복희(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兒童學會誌**, **21**(4), 35-50.

김민정, 김정원(2010).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4**(2), 5-28.

김보미(2009).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송이(2012). 맞벌이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주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희, 김경숙(2015). 유아의 배려행동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간 관계, **아동교육**, 24(4), 139-155.
김영임(201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예은(2016). 유아의 정서성과 정서추론 능력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애(2001). 자녀성장단계별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비교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훈, 이지영, 성지현(2013).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관련 변인이 2세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兒童學會誌**, 34(6), 77-96.
김주연(202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고양: 위즈덤하우스.
김지현, 김영희(2017). 어머니의 정서성,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117-137.
김지현, 오선진(2015).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자기조절력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4), 67-91.
김현미(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미(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슬기(2015). 만 5세 유아의 감성지능 및 자기조절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보람, 은선미, 이강이, 김은영(2016).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구조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人間發達硏究**, 23(3), 157-179.
류관열(201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아동교육**, 21(3), 121-240.
류다형, 이순형(201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일반가정과 비교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107-131.
문영경, 민현숙(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65-176.

문영경, 이영(2012).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1), 103-119.

박명숙(2002).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 아동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311-327.

박현숙(2017).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현진(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화(2017). 집단미술치료가 어린이집 만 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7**(1), 17-34.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 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손남숙, 이숙희(2008). 부모양육태도가 만4세-6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49-78.

송소아, 남기원(2017).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기질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幼兒 敎育學論集**, **21**(5), 325-349.

신명선, 김효정(2017). 3-5세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양육스트레스, **언어치료연구**, **26**(4), 157-171.

신옥순(1994). **유아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신재숙(2014). 유아를 둔 맞벌이 어머니의 부모 참여 활동에 관한 질적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라리(2005). 유아의 개인 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지현(2011). 어머니의 성격유형 및 놀이참여 형태와 만 5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현주, 이진희(2013). 유아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3), 185-203.

유우영, 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 변인 간의 인과관계-양육 스트레스원, 사회적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10), 65-78.
유정화(2013).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이 어머니의 회복탄력성 및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목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귀애, 김영희(2016).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과 부부친밀감 및 역할 수행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93-119.
이기숙, 김순환, 김민정(2010). 유아의 성, 연령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머니 양육유형과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0(4), 187-212.
이무영(2000).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兒童硏究**, 14(1), 1-21.
이순복, 김성원, 김정희, 박지영, 석은조(2013). **놀이지도**, 파주: 양서원.
이은영(2008).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희(2000). 어머니가 인지한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지현(2012). 만 5세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의 회복탄력성의 경향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태옥(2015).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성실, 이정미, 김영희(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2), 143-157.
장원보(2013). 유아의 사회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및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유진, 이강이(2011). 유아의 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자기지각에 미치는 영향, **兒童學會誌**, 32(3), 59-76.
장현숙(2001). 맞벌이가정의 부모교육, **지성과 창조**, 4, 171-188.
전연우, 김태경, 조희숙(2013). 그림책『행복한 우리가족』에 나타난 현대 어머니상 탐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4), 1-22.
정미라, 강수경, 이방실, 김민정(2014).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인지 및 동작 발달의 차이, **열린유아교육연구**, 19(5), 97-117.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정옥분, 권민균, 김경은, 김미진, 노성향(2008). **보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조상흔(2007). 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정, 정주성(2011). 유아-어머니 애착유형에 따른 놀이특성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

계, **아동교육**, 20(1), 251-264.
조재숙, 박재학(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 조절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7(2), 1-20.
조현주(2007). 어머니가 지각하는 삶의 질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수준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지성애(2016).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성인애착과 유아의 스트레스·사회성에 관한 연구, **幼兒 敎育學論集**, 20(4), 381-407.
지성애, 김미경(2003). **유아사회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지성애, 이동엽(2016).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 제반변인에 관한 연구, **幼兒 敎育學論集**, 20(5), 485-513.
채영문(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 **영유아교육연구**, 13, 117-132.
최미정(2016). 일터 영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민자(2004). 유아의 다중지능과 양육환경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성애(2014). **회복탄력성**, 서울: 해냄출판사.
최옥주(2016).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 유아 사회성 간의 종단연구, **유아교육연구**, 36(3), 127-149.
최윤경(2004). 어머니의 역할만족, 취업여부와 유아 사회성 발달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윤경(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교육신념과의 관계: 충청남도-H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윤지, 박인전(2017). 어머니의 공동체의식 및 회복탄력성과 유아의 배려행동 간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2(3), 99-126.
최윤지, 박인전(2018). 어머니의 공동체의식, 행복감, 회복탄력성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배려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9(4), 315-351.
최윤희, 문혁준(2018).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221-228.
통계청(2010). 여성취업 장애 요인.
통계청(2014). 맞벌이 가정의 가사분담 실태조사.
통계청(2019). 여성경제활동인구.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한명숙(2007). 아버지의 놀이 참여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미림(2013).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지은(2015). 유아의 기질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의 역할,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Anthony LG, Anthony BJ, Glanville DN, Naiman DQ, Waanders C, Shaffer S(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J,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Baron, R. M., & Kenny, D.(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edell, J. R, & Lennox, S, S.(1997). Handbook for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New York: John Wilry & Sons, Inc.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83-96.
Connor, K.M. & Davidson, J, T(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Friborg,O.,Barlaug,D.,Martinussen,M.,Rosenvinge,J.H.,& Hjemdal,O.(2005). Resilience in relation to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14*(1), 29-42.
Garmezy, N.(1983). Stressors of childhood. In N. Garmezy and M. Rutter(ed.).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Gresham, F. M. & Elliot, S. N.(1990). Social skills ratio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Greener, S.H.(2000). Peer assessment of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Moral Education*, *29*(1), 47-60.

Greenstein, T. N.(1986).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in parental labor force particip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3), 565-571.

Hayes, A. F.(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이형권(역),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경기: 신영사.

Klohne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Kuczynski, L., & Kochanska, G.(1990). Development of children's noncompliance strategies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26*(3), 398-408.

Lazarus, R.s & Folkman, S.(1984). Stress proc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02-113.

Linke, P. (2010). Promoting resilience in young children. *Educating Young Children: Learning & Teaching in the Early Childhood years*, *16*(2), 35-38.

Luthar, S. S &, Cicchetti, D., & Becker, B.(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Reivich, K., & Shatte, A.(2002).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Three Rivers Press.

Russell, L. & Russell, J.(1995). *Change resilience.* Retrieved October 7, 2009, from http// www.russellconsultinginc.com/docs/

Rutter, M.(1987).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Orthopsy chiatry, 57(3)*, 316-331.

Ryan, L., & Caltabiano, M. L.(2009).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Resilience in Midlife Scale. Asian *Social Science, 5*(11), 39-51.

Seccombe, K(2002). "Beating the Odds" Versus "Changing the Odds": Poverty, Resilience, and Family Policy.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Smith, B, W., Dalen, J., Wiggins, K., Tooley, E., Christopher, P., & Bernard, J., (2008). The brief resilience scale: Assessing the ability to bounce back,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5,* 194-200.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290-312. Washington DC :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UBC 프라임 뉴스(2020). http://web.ubc.co.kr/wp/archives/81526.

Venture, J. N.(1987). The strss ofparenthood reexamined. *Family Relations*. *36*(1), 26-29.

Wagnild, G. M., & Young, H, M.(1993). Developmentg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 165-178.

# Abstract

##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in mom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in working mom and Social Ability in young children

Yu, So Min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in working mom and resilience, social ability in child,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social ability in child. The established research problem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s there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ing stress in mom, resilience and social ability in child?
2. Does resilience have mediating effect on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 stress and social ability in child?

The research subjects were 220 mothers from working with a seven-year-old child living in U city.

The study extracted a Korean version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based on Abidin's(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in order to measure the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 The study only extracted the 'parental role burden and distress' por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 revised version of the resilience index verified by U-yeol Sin,

Min-gyu Kim, and Ju-hwan Kim(2009) were used, which involved revising incorrect translations or awkward phrasing in the Resilience Quotient Test:RQT (Reivich & Shatte, 2002). In order to measure social ability in young children, the study used what Mi-ok Seo(2004) validated with preschool aged children as subjects, from one of the scales in Gresham and Elliot's Social Skills Rating System(SRSS).

The study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by using SPSS and SPSS Process Macro. First, the study calculated frequency and percentage in order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Second, the study calculated Cronbach' α in order to reliability verification between overall variables. Third, the study calculat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in order to comprehe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verall variables. Fourth, the study tested for a mediating effect by using the 'Process Macro' suggested by Hayes(2013) in order to reveal whether resilience produce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the social ability of young children.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 and social ability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nd the sub-factors of social ability namely cooperation and self-control both appeared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parenting stress.

Second, the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 and resilience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ub-factors of resilience, namely, control, positivity, and sociality all appearing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

Third, the resilience of the mother and social ability in young children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ub-factors of resilience, namely, control positivity, and social ability all appearing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sub-factors of social ability in young children, namely, cooperation, self-control, and assertiveness.

Fourth, an examination for a mediating effect on the part of the resilience of the moth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 and social ability in young children showed that there was indeed a mediating effect.

Therefore, although the direct influence of the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 on social ability in young children was not significant, the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 decreases when the resilience of the mother is inserted as a mediating variable, which ultimately sufficiently produces an indirect effect of increasing social ability in young children. This verifies a mediating effect on the par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 and social ability in young children, thereby revealing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e present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s a mediating effect on the part of the resilience of the moth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 and social ability in young children.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is expected to aid the building of various support systems capable of helping young children properly develop early social ability by relieving the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

Keyword : Social Ability, Parenting Stress, Resilience

# 부 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연구자 유소민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질문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부모교육 및 아동발달을 연구함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신 이 질문지의 내용은 학문적 연구를 위해 사용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일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가정의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석사학위과정

※문항을 읽고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일치하는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 | | | |
|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 | | | | |
|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 | | | | |
|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 | | | | |
|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 | | | | |
|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 | | | | |
|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 | | | | |
|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 | | | | |
|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 | | | | |
|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 | | | | |
|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 |

※문항을 읽고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일치하는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 처리한다. | | | | | |
| 2. 나는 당장 할 일이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 | | | | |
| 3.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 | | | | |
| 4.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 | | | | |
| 5.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 | | | | |
| 6. 나는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 | | | | |
| 7.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한다. | | | | | |
| 8. 나는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 | | | | |
| 9. 나는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 | | | | |
| 10.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 | | | | |
| 11. 나는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메모한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 | | | | |
| 12. 나는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 할 것이 별로 없다. | | | | | |
| 13. 나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 | | | | |
| 14.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 | | | | |

| | | | | | |
|---|---|---|---|---|---|
| 15. 나는 내 사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다 갖고 있다. | | | | | |
| 16, 나는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17. 나는 옳든지 그르든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 | | | | |
| 18. 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 | | | | |
| 19. 나는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하게 된다. | | | | | |
| 20. 나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 | | | | |
| 21. 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 | | | | |
| 22. 나는 재치있는 농담을 잘 한다. | | | | | |
| 23.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할 때, 관련된 적절한 말이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 | | | | |
| 24. 나는 분위기나 상대방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 | | | | |
| 25. 나는 사람들의 얼굴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 | | | | |
| 26. 나는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 | | | | |
| 27. 나는 가족이나 동료 등 주변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 그 이유를 잘 아는 편이다. | | | | | |

※ 각 문항에 대해 해당 자녀가 보여주는 성향의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칸에 √ 표시 해주십시오.

| | 문항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부모님의 지시에 따른다. | | | | | |
| 2 | 친구를 쉽게 사귄다. | | | | | |
| 3 | 심부름을 잘 수행한다. | | | | | |
| 4 | 집에서 가지고 논 장난감을 제자리에 둔다. | | | | | |
| 5 | 도움 없이 스스로 해보려고 한다. | | | | | |
| 6 | 다른 사람과 놀이를 할 때, 규칙을 지킨다. | | | | | |
| 7 | 어른이 혼내도 잘 참을 수 있다. | | | | | |
| 8 | 친구를 칭찬할 수 있다. | | | | | |
| 9 |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 | | | | | |
| 10 | 또래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 | | | | | |
| 11 | 적절한 때에 자신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 | | | | | |
| 12 | 어른이 도와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 | | | | |
| 13 | 또래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찬사에 고마움을 표현한다. | | | | | |
| 14 | 차례를 잘 기다린다. | | | | | |
| 15 | 또래와 싸울 때 참을 수 있다. | | | | | |
| 16 | 또래에게 먼저 놀자고 말을 건다. | | | | | |
| 17 | 정해진 시간에 해야할 일을 한다. | | | | | |
| 18 | 놀이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같이 하자는 말을 한다. | | | | | |
| 19 | 다른 사람의 놀이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 | | | | | |
| 20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 | | | | |
| 21 | 친구들이 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 있다. | | | | | |

※다음은 일반적 현황입니다.

1. 다음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문항입니다.

| | |
|---|---|
| 자녀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
| 자녀의 출생순위는? |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이상 |
| 자녀의 수는? | ① 한 명 ② 두 명 ③ 세 명 이상 |

2. 다음은 귀하에 대한 문항입니다.

| | |
|---|---|
| 연령은? | _____년생 |
| 학력은? | ① 중졸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br>③ 2,3년제 졸업 ④ 대졸 이상 |
| 직업은? | ① 공무원 ② 사무직/기술직 ③ 판매/서비스<br>④ 생산/기능직 ⑤ 전문직<br>⑥ 기타 |
|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 ① 300만원 미만 ② 300~400만원 미만<br>③ 400~500만원 미만 ④ 500이상 ⑤기타( ) |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